# 김국영 한국신·다관왕 동시 사냥 나선다

김국영

## 103회 전국체전 울산서 7일 개막
## 100m·200m·릴레이 3관왕 도전
## 강다슬과 남녀 100m 동반우승 관심

대한민국 간판 스프린터 김국영(31·광주시청)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신기록 수립과 다관왕에 도전한다.

김국영은 7일 울산에서 개막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 100m와 200m, 그리고 4×100mR에 출전한다.

육상경기는 9일 시작하며 김국영은 첫날 100m, 10일 200m, 11일 4×100mR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종목은 남자 100m다.

한국신기록 수립은 물론 한국육상의 꿈인 9초대를 바라보는 올 시즌 김국영의 페이스는 좋다.

2022오리건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22항저우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예년보다 이른 1월부터 시즌을 준비했다. 독일 등 유럽 전훈을 거쳐 5~6개의 실내육상대회에 나서면서 외국 선수들과 기량을 겨뤘다.

스타트가 좋은 김국영이기 때문에 60m는 해볼 만 하다고 여겼고 실제로 2월 체코에서 열린 야블로네츠 실내육상대회 남자 60m에서 6초69로 우승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국내 첫 대회인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를 10초33으로 시작한 김국영은 지난 6월 일본 후세 테오 스프린트에서 남자 육상 100m 한국 역대 2위 기록인 10초09를 기록했다. 10초09는 김국영이 2017년 작성한 한국 기록 10초07 이후 5년 만의 최고기록이다.

한 달 후인 지난 7월에는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서 10초07을 기록했다. 하지만 레이스 당시 뒷바람(초속 2.3m)이 불면서 정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00m에서는 바람이 초속 2.0m 이하가 돼야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날 김국영의 기록은 '비공인'이 됐다.

욕심냈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은 불발됐고 아시안게임은 1년 연기되면서 목표했던 레이스에 다소 제동은 걸렸으나 김국영의 기록 도전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김국영에게 남자 100m 한국신기록은 목표이자 도전이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좋은 기록은 한여름에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쌀쌀한 날씨에 열리는 체전이 기록 단축에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김국영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신기록"이라면서 "전국체전은 광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에 메달도 중요하지만 김국영이 일단 100m에서 다시 한번 한국신기록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훈련도 잘 진행되고 있고, 김국영의 몸 상태도 나쁘지 않다. 100m에서 기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국영의 전국체전 첫번째 레이스 남자 100m 결승은 9일 오후 3시35분 울산종합운동장육상경기장에서 열린다.

한편, 광주시청 육상팀은 이번 체전에서도 남녀 100m 동반 우승을 노린다.

올해 여자 100m 1위를 달렸던 강다슬과 김국영이 이번 체전에서도 남녀 100m 동반우승을 일궈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남자 탁구 '8강 스매싱'

## 세계선수권서 폴란드 3-0 완파

한국 남자 탁구가 단체전 세계선수권대회 8강에 진출했다.

주세혁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은 5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2 국제탁구연맹(ITTF) 단체전 세계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유럽의 복병' 폴란드에 3-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이집트를 3-0으로 제압하고 올라온 홍콩과 8강에서 맞붙는다.

오른손 펜홀더 웡춘팅(이하 단식 세계랭킹·27위)이 '에이스'로 나서는 홍콩은 방심해선 안 되는 난적이다.

웡춘팅은 한국의 에이스 장우진(국군체육부대)과 상대 전적에서 4승 2패로 앞서고, 안재현(삼성생명)과는 1승 1패로 호각세를 보인다.

웡춘팅과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는 선수는 '막내' 조대성(삼성생명)뿐이다. 2019년 호주오픈에서 한 차례 맞붙어 조대성이 승리했다.

한국은 대회 첫 고비인 홍콩을 넘으면 '유럽 최강' 독일을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전날 진행된 조 추첨에서 '최강' 중국과 '난적' 일본을 결승까지 만나지 않는 대진을 받았다. 상승세를 보이는 스웨덴도 피한 '행운의 대진표'를 받아 들었다.

폴란드는 최근 급격하게 랭킹을 끌어올린 신예 위주로 팀을 구성했다.

한국은 가뿐하게 전 매치에서 무실세트 승리를 거두고 여유롭게 8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 주전으로 맹활약하는 조승민(65위)이 첫 1단식에서 사무엘 쿨치츠키(123위)를 3-0(11-8 11-9 11-8)으로 제압했고, 2단식에서는 장우진(17위)이 밀로시 레드짐스키(232위)를 역시 3-0(11-8 11-2 13-11)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막내' 조대성(91위)이 상대 에이스 마체이 쿠비크(90위)를 3-0(11-8 15-13 12-10)으로 제압하며 8강행을 결정지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이 5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2 국제탁구연맹(ITTF) 단체전 세계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유럽의 복병' 폴란드에 3-0으로 승리했다. 사진은 남자 탁구 대표팀 조대성. /연합뉴스

# 신진서 34개월 연속 1위

## 한국 바둑 랭킹 2위는 변상일

신진서(22·사진) 9단이 34개월 연속 한국 바둑계 정상을 지켰다.

신진서는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10월 랭킹에서 1만398점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달 3승 1패를 기록한 신진서는 이날부터 제45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결승 3번기를 통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한편 33개월간 2위를 유지했던 박정환(29) 9단은 이번에 9903점으로 변상일(25·9953점) 9단에게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다.

지난달 변상일은 4승 1패를 기록해 15점이 늘어난 반면, 박정환은 1승 4패로 48점이 줄어 순이가 바뀌었다.

강동윤·신민준 9단이 공동 4위에 올랐고 이동훈 9단을 비롯해 박건호 6단과 김명훈·박하민·원성진 9단이 그대로 6~10위에 자리했다.

100위 이내 포진한 기사 중에서는 최기훈 6단이 23계단 상승한 74위에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여자랭킹 1위 최정 9단은 지난달 2승 2패를 기록하며 전체 랭킹에서 6계단 하락한 30위에 자리했다.

이어 김채영 7단이 4승 3패로 8계단 하락한 75위로 내려갔고, 지난달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에서 우승한 오유진 9단은 7계단 상승한 91위를 기록했다.

김은지 3단은 2계단 하락한 92위에 랭크되며 여자랭킹 4위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 LPGA 9승 최나연 은퇴 선언…"경험·지식 나누고 살 것"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9승을 거둔 최나연(35)이 은퇴를 선언했다.

최나연은 5일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어려운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렸다"며 "제 인생의 전부였던,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미웠던 골프를 그만하려고 한다"고 은퇴를 발표했다.

그는 "지금이 제가 은퇴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한치의 부끄러움과 후회 없이 열심히 선수 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고민의 시간이 절대 쉽지는 않았지만, 저를 위해 또 한 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나연은 20일부터 나흘간 원주의 오크밸리CC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와 작별을 알리고, 다음 달 11일부터 예정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을 은퇴 경기로 삼는다.

고교 1학년이던 2004년 11월 ADT캡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뒤 프로 무대에 뛰어든 최나연은 2008년부터는 LPGA 투어에서 뛰었다. 국내·외를 통틀어 통산 15회 우승을 차지했다.

LPGA 투어에서는 2009년 삼성월드챔피언십을 시작으로 9승을 수확했다.

2010년 LPGA 투어 상금과 평균 타수 1위에 올랐고, 2012년에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을 제패했다.

마지막 우승은 2015년 6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이다.

최나연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를 응원해주신 전 세계의 많은 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선수로서 필드는 떠나지만, 최나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레슨 행사 등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승하며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고 돌아본 최나연은 "많이 그리울 것도 같지만, 이제부터 또 다른 두 번째 인생을 신나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더욱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사랑과 응원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나연

# '우승은 밀워키, MVP는 돈치치'

## NBA 30개 구단 단장 설문

밀워키 벅스가 2022-2023시즌 미국프로농구(NBA) 무대를 준비하는 30개 구단 단장들이 지목한 우승 후보 1순위로 뽑혔다.

NBA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30개 구단 단장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5일(한국시간) 발표했다.

해마다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우승 후보로 밀워키가 43%의 응답률로 25%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공수 겸장 포워드 커와이 레너드가 긴 부상 끝에 복귀하는 LA 클리퍼스가 21%로 3위에 올랐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중심으로 2020-2021시즌 챔피언에 오른 밀워키는 당시 활약한 크리스 미들턴, 즈루 홀리데이 등 주요 전력이 그대로 남아있다. 디펜딩챔피언 골든스테이트도 스테픈 커리를 비롯해 앤드루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 등 전력이 건재하지만, 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밀워키에 밀렸다.

최우수선수(MVP) 후보로는 루카 돈치치가 48%를 획득, 아데토쿤보(34%)를 제쳤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 투표에서 2위를 한 조엘 엠비드(필리델피아·14%)가 이 부문 3위에 올랐다.

2022-2023시즌 NBA 정규 리그는 오는 19일에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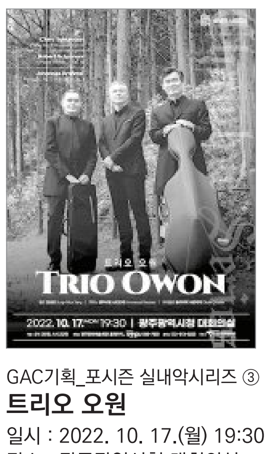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정직한 후보2 |
| 2관 | 정직한 후보2, 컴백홈 |
| 3관 | 정직한 후보2, 스마일 |
| 4관 | 인생은 아름다워 |
| 5관 |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
| 6관 | 공조2: 인터내셔날 |
| 9관 | 정직한 후보2, 컴백홈 |
| 7관 씨네커플 | 공조2: 인터내셔날,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펀 버전` |
| 8관 씨네커플 |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스마일,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 2022. 10. 1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